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2024년 4월 21일 / 제634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문성익 제2독서 유인숙 / 입당 55 봉헌 210, 510 성체 163, 153 파견 54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Chris Sigua 2nd Reader Kane Lee

입당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4,8-12

화답송 | 시편118(117),1과 8-9.21-23.26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2독서 | 1요한 3,1-2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 요한 10,11-18

영성체송 | 루카 24,46-47 참조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4월 21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04월 28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05월 05일	주일학교 NO	Fr. Theo
05월 12일	주일학교 NO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꾼에게도 필요한 인내

전쟁의 참화가 프랑스에 드리웠을 때,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자처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말로 자신이 좋아한 희랍어 단어 'ὑπομονή'(ହି포모네, 인내)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구원을 실현하는 태도는 어떤 활동과도 비슷하지 않다... 그것은 기다림, 한 없이 지속되면서 어떤 충격으로도 뒤흔들지 못하는 주의 깊고도 충실한 부동성(不動性)이다."(《신을 기다리며》, 2015년)

오늘 복음은 목자와 삶꾼을 대비시킵니다. 먼저 목자는 양을 소유한 이입니다.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봅니다. 양들이 그를 살게 하기에 자신을 돌보듯 양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리의 위협에도 양들 곁에 가만히 머물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목숨은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삶꾼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양들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받은 일당으로 자기 자신만 돌보면 그만입니다. 양은 목자에게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삶꾼에게는 자신의 삶을 꾸릴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삶꾼의 차이는 '인내'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목자는 양들의 걸음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자신과 양들은 걸음 폭이 다르고 눈높이가 다르지만 함부로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인내합니다. 밤을 보낼 집으로 그들을 이끌고, 목을 축일 샘터와 먹이가 있는 풀밭으로 천천히 동행합니다. 양들이 더 살찌고 그들의 털이 더 윤택해지기를 자신의 삶을 담아 희망합니다. 하지만 삶꾼은 기다릴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어서 빨리 해가 떨어져 편안한 잠자리로 돌아가 쉬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양이 잘 먹어 살이 찌는 것은 또 다른 일

거리를 만들기에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꾼에게도 양들은 중요합니다. 그가 먹고 살수 있는 것은 잘 돌본 양들을 보고 목자가 줄 품 값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꾼에게도 목자와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닮아, 그가 했던 대로 양들을 잘 돌보아야만 좋은 일꾼으로 다시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삶꾼은 양들을 잘 돌봅니다. 그리고 양들과 함께 자신의 수고를 알아 줄 목자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부활 4주일인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이날, 목자의 임무를 맡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선교사와 수도자, 성직자들은 그들의 일로 목자이신 주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며, 희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양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꾼처럼 주인에게 고용된 이들일 뿐이지만, 목자의 충실함이 그들을 감화시켜 그들도 목자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양들 속에서, 누구보다 간절히 목자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모두가 한 우리 안에 같이 모일 때, 그들이 찾고 또 살찌운 양들 곁에서 목자와 함께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여!" 응답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제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성당에 처음 오신 예비 신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금고 같기도 하고, 커다란 보석 상자처럼 생긴 저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성체성사에 대해 알게 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감실이라 부르며, 그 안에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비할 수 없는 귀한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것을...

감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셔둔 작은 방, 또는 작은 함(函)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실 안에는 성체포가 깔려 있으며, 그 위에 성체를 담은 성합(聖盒)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성체를 따로 모셔둔 이유는 초기 교회 때 질병이나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세기경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병자성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종자를 위한 성체 규정이 정해지면서 성체 보관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고, 4~5세기경 성당 안에 성체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이후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에서는 성체의 안전을 위해 감실을 열쇠로 잠그도록 하였으며, 13세기경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실제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벽면 감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견고한 금속으로 감실을 제작하고 적절한 장식을 통해 성체의 존엄성을 드러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실의 위치와 관련하여 교회에서는 제대 위가 아닌 제단 안이나, 가능하면 성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으로 조배하고 기도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미사경본 총지침 315항 참조)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도의 경당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성당 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모시도록 권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잘 띄는’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성당 중심에 모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현재화되는 제대가 성당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실은 제대의 중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고귀한 위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실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실은 미사가 거행되지 않는 시간에 신자들이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흠송하고,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聖幕, 탈출 26,1-14)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삶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감실은 주님의 현존과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도록 이끄는 길이 되어 줍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 주일학교 첫영성체반 주요 일정

- 4월 28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첫고해 및 전례 연습
- 5월 4일(토), 오전 10시: 사진 촬영 및 리허설
- 5월 5일(주일): 첫영성체(부활 제6주일 교중미사 중)

■ 주일학교 견진성사 일정

- 4월 2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견진 후보자 면담
- 4월 27일(토), 오후 2시: 견진성사(오클랜드 주교좌성당)
 - * 대상자: 정선우 요한사도, 김엘라 마리아막달레나, 이은호 에밀리아나, 정시은 소피아, 주강산 노아, 최지혜 소피아, 홍준모 가브리엘(이상 7명)
- 견진성사를 앞둔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스피커 시리즈

- 주제: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My weight is my love),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 예수회의 정체성
- 일시·장소: 4월 21일(주일), 오전 11시·Room A
- 강사: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부제님(예수회)
- 대상: 견진반 및 중고등부 학생
 - * 한국어 미사참례 후 스피커 시리즈 참석, 견진반 학생들은 스피커 시리즈 후 주임 신부님 면담이 이어집니다.

■ 성 가브리엘 복사단 및 부모 모임

- 일시: 4월 21일(주일), 오후 12시 - 1시
- 장소: Room A

■ 울뜨레야 4월 월례모임(엠마오 여정)

- 일시: 4월 21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Shadow Cliffs Regional Park (2500 Stanley Blvd. Pleasanton)
- 장소 도착 후 간단한 점심식사
- 식사 후 호수가 주위 하이킹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510-396-4740)

■ 2024년 예비신자 교리반 재모임

- 일시: 4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교리실
- 내용: 첫고해 안내, 신앙생활 나눔 및 질의응답

■ 성당 시설 사용 관련 안내

- CCOP의 St. Augustine Hall 공사로 인하여 5-9월까지 성당 시설 사용 예약이 잠정 중단됩니다.
- 공사 기간 중 Room A·B, 유아실, 체육관 등 시설 이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4월 월례 모임

- 일시·장소: 4월 28일(주일), 오후 1시·Room A
- 문의: 유인숙 요한나(925-708-8510)

■ 주일학교 일정 안내

-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주일학교 수업 있음
- 4월 27일(토): 견진성사(장소: Christ the Light Cathedral)
- 5월 5일: 첫영성체(오전 9시 30분, 한국어 미사)
 - * 주일학교 수업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9시 30분 미사참례와 첫영성체를 함께 축하해 주세요.
- 5월 5일(주일): 주일학교 방학
- 5월 12일: Mother's Day, PTA 정기총회(오전 11시, 소성당)
- 5월 19일(주일): 야외 미사
- 5월 26일(주일): 졸업생 축복 미사(오전 9시 30분, 한국어 미사)

■ 북미주 서증부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 일정: 8월 1일(목) - 4일(주일)
- 장소: St. Clare's Retreat
2381 Laurel Glen Rd., Soquel, CA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510-396-4740)

■ 4월 반모임 일정

마태 5	4/27(토) 8PM	Room A	949 838 5041
------	-------------	--------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929	\$450	\$4810	\$300	\$210	\$7699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계상진(4), 김민호(1-6), 김영호(1-6), 김홍락(4), 윤혜숙(4), 이재실(1-3), 이종구(4,5), 장찬(4), 조원정(4), 채성우(4-6), 함종식(4), 홍사현(3), 황준영(4)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민호(1-6), 김홍락(4), 이재실(1-3), 이종구(4,5), 조원정(4), 채성우(4-6), 함종식(4), 홍사현(3)

- Bishop's Appeal

김민호(1-6), 김홍락(4), 이재실(1-3), 이종구(4,5), 조원정(4), 채성우(4-6), 함종식(4), 홍사현(3)

- 성전봉헌금 김영호

- 간식봉헌

이경옥 루시아 / 함종식 마티아·이복준 세실리아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